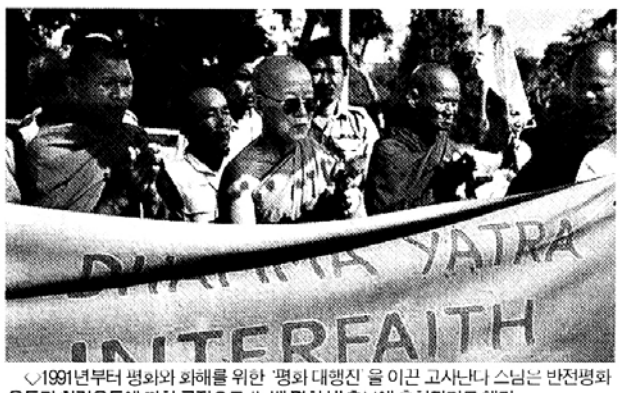


◇고사난다 스님의 자비심은 가족을 살해한 크메르루주군에 대한 미움도 잊을 정도로 절대적이다.



◇1991년부터 평화와 화해를 위한 '평화 대행진' 을 이끈 고사난다 스님은 반전평화 운동과 환경운동에 끼친 공적으로 '노벨 평화상' 후보에 추천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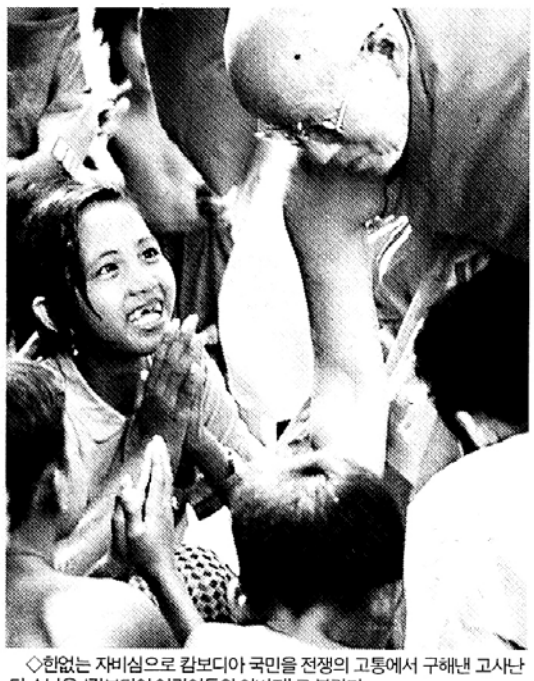
극복 에너지의 원천'

난 스님은 43년 타케오 인근 사원에서 출가했다. 53년 인도 나란다대 수학을 마친 후 일본, 태국, 미얀마 등지에서 수행했다. 80년 UN 산하 기구 '평화 계획' 설립, '평화를 기원하는 기도의 날' 을 제정했으며, 88년 캄보디아 종정에 추대된 이후 로마, 미국, 티베트, 영국, 호주 등에서 순회법회를 계속하고 있

평화운동으로 맞서

하기구 '평화계획' 설립

다. 92년 세계 인권상 수상, 98년 나와 노 평화상 수상. 저서에 〈한 걸음 한 걸음(Step by Step : Meditation on wisdom and compassion)〉과 〈과연 누가 적인가(Who is the Enemy)〉 〈평화는 우리 모두의 목표(Peace is our common goal)〉 등이 있다.



◇한없는 자비심으로 캄보디아 국민을 전쟁의 고통에서 구해낸 고사난다 스님은 '캄보디아 어린이들의 아버지' 로 불린다.

행복-슬픔, 실망-만족에 끄달리지 말고

감정의 파도없는 '평안의 섬' 에 안착을

詩

깊었다
대한 동정심
마음을 만들고
사람을 만든다
가족을 만들고
공동체를 만든다
은 나라를 만들고
세계를 만든다
로움 속에서 살아가길…

역시, 평화로울 것이라고 강조한다. 스님은 생기고, 멸하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잃고, 얻는 인생에서 일일이 행복과 슬픔, 환희와 절망, 실망과 만족, 희망과 공포 등으로 일일이 반응할 것이 아니라 감정의 파도가 없는 '평안의 섬' 에 안착하길 바란다. 무관심한 둔감이 아닌, 또렷한 정신에 입각한 평정심의 유지를 말이다.

1981년, UN은 캄보디아의 미래를 논의할 국제회의를 개최했다. 이 때 고사난다 스님은 평화를 기원하는 불교의식을 주관했다. 의식이 끝나갈 무렵, 한 크메르 루즈 지도자가 스님에게 다가가, '태국 국경 근처에 사원을 건립해 줄 수 있는지' 를 아주 조심스럽게 물었다. 고사난다 스님은 즉시,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 때 많은 참석자들은 "오우! 고사난다 스님이 적과 대화를 나누고, 적을 돕겠다고 했다니. 어떻게 그럴 수 있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사난다 스님은 "사랑은 그들이 고귀하거나 저급하건 간에, 좋거나 나쁘거나 간에 모든 생명을 감싸안는다"고 상기시켰다.

고사난다 스님은 독재자를 사랑하는 것, 즉 캄보디아인들이 크메르 루즈를 사랑한다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에 대해 추호의 의심도 품지 않았다. 그러나 복수와 증오, 앙갚음은 결코 멈출 수 없는 윤회를 되풀이 하리란 것이 우주의 보편적인 진리였다. 고사난다 스님은 "화해는 우리가 정의와 조건에 굴복했다는 의미가 아니기에, 오히려 우리는 모든 협상자들에게 사랑을 사용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것은 적을 통해서 자신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적과 우리는 모두 사물의 이치에 무지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오직 자비심과 올바른 집중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우리 개인들은 모두 각자의 구제(救濟)와 행복에 대해 책임을 져야합니다. 자비행을 통해 우리는 구원의 길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 보살행은 모든 존재를 사랑하는 일인 동시에, 우리를 무명에서 광명으로 이끄는 방편입니다."

고사난다 스님은 '국제 참여불교 네트워크' (INEB), 불교평화우의회(BPF) 등 국제적인 NGO들은 물론 캄보디아 헌법의회 자문위원회의 고문 및 자문 역할을 하면서 세계 평화운동에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는 1994년 이태리에서 열린 제 6회 세계 종교평화회의에 참석, 대회를 주재할 정도로 '종교간 대화' 의 전문가이기도 하다.

마하 고사난다는 그의 무한한 사랑을 모든 사람들에게 베푼다. 그들이 친구이든, 적이든, 정신과 행동으르써, 그는 세계의 종교적 인종적 갈등을 치유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보여주고 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워짐과 동시에, 모든 생명들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자비심과 능력이 생깁니다."

모든 생명들을 이롭게 하려는 자비심은 깨달음을 얻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며, 여러 수준 높은 수행의 뿌리가 된다. 아무리 오래 경전을 공부했다 하더라도 보리심을 지닌 보살의 단 일분간의 명상 효과에 미치지 못한다. 모든 생명의 구제를 서원으로 삼아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겠다는 각오를 굳건히 하면, 마음은 더없이 고요해진다. 자비와 사랑의 성스러운 물이 마음의 모든 굴곡을 감싸며 잔잔하게 하는 까닭이다.

전쟁을 끝내고 지금 활발하게 재건운동을 벌이고 있는 캄보디아 국민들에게 국난 극복의 의지를 담은 스님의 소중한 법문 하나 하나는 큰 힘이 되고 있다. 스님의 가르침은 오늘날 지구촌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아, 환경, 질병, 전쟁 등 사회문제에 노출되어 있는 현대인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스님은 마음과 말과 몸, 이 세 가지를 잘 조절하는 사람을 가리켜 진정한 수행자라고 말하고, 언제나 수행자처럼 평안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면 세계



정운스님의
스님이야기
법인스님

법인스님의 은사스님이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평소에 스님께서 젊은 수좌들에게 베풀었던 마음씀씀이를 떠올리며 절에 갔다. 마침 결제철에다, 설날도 얼마 남지 않은 때라 내심 걱정했는데 많은 스님들이 와 있었다. '스님께서 누구에게나 보여주셨던 정성스러움과 평소 당신 상좌가 아니더라도 젊은 수좌들에게 베풀었던 마음 씀씀이에 보답한다' 는 보은의 마음으로 온 스님들이 많았던 것이다.

평소 스님은 말씀 하나를 하시더라도 아랫사람에 대한 배려를 담아 하신다. 도반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법인스님이 먼저 받으시는 경우가 있다. 그럴때면 항상 반갑게 먼저 인사하신다. 또 절대 반말을 하지 않는다. "몸은 어때요? 공부는 잘되지요?"하며 일상적인 안부를 물으시고 전화를 바꿔준다. 권위만을 내세우는 어른이 얼마나 많은가. 그렇지만 스님께서는 언제 어느때나 먼저 아랫사람을 걱정하고 챙겨주신다. 서열이 엄격한 수직사회의 대표격으로 군대를 들지만 불



가(佛家)도 엄격한 수직사회다. 자비와 평등을 내세우는 불가지만 평등 사회가 되지 못하다는 점은 한번쯤 재고해 보아야 한다. 승가내서만이 아니라, 일부 스님들이 신도들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고압적인 면이 있는 것을 가끔 볼 때가 있다.

내 도반중 강단에서 강의를 하는 스님이 있다. 법인스님은 그 강사스님이 제자뻘 되지만 절을 올리면 꼭 맞절을 하신다. 부처님 법을 전하는 강사이니 당신보다 아래라도 '어른' 이라는 것이다. 언젠가 강원 도반들이 스님 절에 모인 적이 있다. 그 스님이 잠깐 자리를 뜬 사이, 우리들에게 "아무리 도반이라도 저 스님을 강사로서 어른 대접해야지 함부로 하면 되느냐"고 훈계를 하셨다.

일전에 감명깊게 본 영화 중에 '원 트루 씽(One True Thing)' 이 있다. 줄거리는 '도시 생활하던 딸이 암투병중인 어머니를 돌보러 고향에 돌아온다. 기자로서 얻은 명예까지 내던지고 어머니를 돌보지만, 자신이 손해보는 것 같아 매사에 불만이 가득했고 어머니의 평범한 삶을 하찮은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어머니와 단둘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차츰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어머니의 소중한 가치들을 발견해가고, 사소한 것에도 인생의 깊이가 담겨 있음을 깨닫는다' 는 것이다. 이 영화처럼 중생들과 더불어 살아가되 그 안에서 인간의 따스한 정을 내포하는 자체가 수행이요, 소욕지족으로 일관된 수행을 지향하는 것 또한 선(禪)이 아닐까(?) 억지부려 본다.

법인스님은 삶 자체가 수행이 되야 한다는, 평범한 지혜를 후학들이 스스로 느끼게 해주시는 분이다. '일상생활이 곧 진리' 임을 주장한 분이 중국 당나라 때 마조선사다. 이후 중국 · 한국의 선수행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선사상이 '일상의 마음' 이다. 물론 깨닫고 난 뒤의 마음과 깨닫기 전의 마음은 다르다고 하겠지만, 그 본바탕은 같은 차원이다. 법인스님께서는 넉넉치는 않지만 자신의 형편대로 베푸시는 인간적 정이 일상인 분이다. 이것이야말로 근원적인 마음바탕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스님들은 자기에게 맞지않는 승복은 서로 주고 받기도 하고, 젊은 스님들은 어른 스님들로부터 승복을 물려입기도 한다. 언젠가 가을에 도반 절에 가서 스님과 합석한 자리에서 차를 마시면서 "밖에 자주 나가다 보니 춘추옷 여벌이 없어 불편하다"고 하자, 스님께서는 당신이 입지 않는 옷이라고 하면서 한 벌을 주셨다. 스님께서는 "공부하는 학인에게 옷 한 벌 제대로 해주지 못

'삶 자체가 수행' 수범으로 깨닫게

아랫사람에게 항시 존댓말 · 배려

해 미안하다"며 도리어 사과까지 하셨다. 필요한 물품이나 음식 등 누구에게나 챙겨주시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 법인스님이다.

절 집에는 법회, 불공등 큰 행사를 치르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일이 많다. 큰 일을 치를 때, 어른 스님들은 분주하기는 한데 일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으면 힘겨운 기색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스님께서는 무슨 행사를 하더라도 역정 내거나 힘겨워 하지 않는다. 아랫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 농담도 들어주고 부드럽게 응해 주시니 모든 일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마련이다. 평소에도 모시고 차를 마실때면 어른 스님들의 수행이야기와 함께 '세월이 덧없고 빨리 흘러가니 젊어서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는 충고를 곁들여 해주신다.

〈법화경〉 서품에 '초선 중선 후선 (初善 中善 後善)' 이라는 말이 있다. 즉 처음도, 중간도, 후에도 여일(如一)함을 말한다. 그러나 고단하고 갈등이 많은 인간관계에서 처음처럼 여일하기란 쉽지 않다. 법인스님을 처음 뵈었을 때나 근 15년이 훌쩍 넘은 지금도, 스님은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여전하시다. 요즘 불가에서조차 내 분증, 내 상좌만 챙기는 시대에 스님은 설령 당신의 제자가 아닐지라도 그런 차별없이 당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성의를 베풀고 따뜻한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젊은 수좌들을 거두고 있다.

서울 니련선하원 한주

전통불교 다듬 광고 문의

자랑스러운
우리 태극전사들이 먹은
수신토종오가피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주)수신오가피 대표 / 성 광 수氏

중국산도 북한산도 아닙니다.

최근 중국산오가피를 북한산이나 국내산으로 표기하여 적발된 업체들이 물의를 일으킨바 있습니다.
수신토종오가피는 중국산도 북한산도 아닙니다. 오직 국내에서 재배한 국산토종오가피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직접 오셔서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국내최대재배자 성광수씨가 매주 수요일 오후2시에 직접 농장견학회를 열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놀란 우리 선수들의 지칠줄 모르는 체력!

선진축구의 파워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우리 선수들의 땀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서 수신토종오가피가 함께 했습니다.
저희의 작은 정성이 우리 선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꼭 확인하십시오!
우리 선수들이 먹는다며 선전하는 오가피제품들이 있습니다.
우리 축구국가대표팀이 먹은 오가피는 '수신토종오가피' 입니다.

사진 확인하셨습니까?

수신토종오가피는 국내최대오가피재배자 성광수씨가 재배한 100% 토종오가피를 원료로 사용한 제품입니다. 품질에 대한 자부심으로 한봉지 한봉지마다 국내최대오가피재배자 성광수씨의 사진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이 없다면 축구국가대표선수들이 먹은 수신토종오가피가 아닙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십시오.

문의전화 (02)454-3733

"천년전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옛 신라인은 수 많은 불교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이 땅 곳곳에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신라인의 불심과 손길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석굴암은 불교신앙을 대표하는 부처님 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국석재조각예술원은 이러한 신라인의 마음으로 소임을 다합니다. 천년 전 신라인의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석재조각의 대가
동국석재조각예술원
전화: 031) 531-8736 팩스: 031) 531-5549 휴대폰: 011-284-5101